

★★ 별처럼 빛나는 ★★

자주 총여학생회 12차 중앙운영위

안건

1. 단위보고
2. 중앙보고
3. 아침이슬투쟁
4. 전여대회
5. 대동학교 - 총여집행회의에서 의의와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조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대동학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들어가며

기간 대동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등 난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동학교의 일정이 많이 늦어지게 되고 그 시기에 부응하는 대동학교의 내용과 수준도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년의 관념화된 틀이 있다면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민족복원 2만학우가 민족복원 파릇한 새대기가 주인되는 (그들의 의식흐름을 잡아내고 선도하는) 대동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2. 기간의 대동학교 평가

(기존 진행되었던 대동학교는 목표와 판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기에 작년을 중심으로 평가함)

- 목표와 의의에 입각하여

- ▶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는 계기였다.
- ▶ 작은 목표 설정에 비해 세상속으로 통해 전반적인 사회를 고민하며 비약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 구체적인 기획판에서

- ▶ 세상속으로 거치면서 실천할 수 있어 인식하는 데 좋았다
- ▶ 마지막 시내에서의 실천 투쟁은 올해도 꼭 받아안았으면 좋겠다.
- ▶ 단여간부들이 우왕좌왕하는 중앙에 의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 예정된 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많았다.
- ▶ 사소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 ▶ 과단위 연계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즉 자봉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 ▶ 무엇보다 단대에서 단위 실정에 맞게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 중앙에서 시키면 시키는 데로 중앙 실무를 단위에서 함께 잘 하자.
- ▶ 이번에도 후속작업이 잘 안 되었다.

3. 4·9로 올버의 대동학교 위상과 의의, 그리고 목표는?..

- 위상과 의의

1. 4·9로 모아진 새내기들을 다시 총화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올바른 삶에 대한 고민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총화해주어야겠다.
2. 어느때보다 의식수준이 높은 새내기들, 4·9를 지나며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진 새내기들에게 고민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3. 의식수준이 높은 새내기들이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새내기들에게 지금까지의 대동학교처럼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남기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실천하게 해야겠다.
4. 단순한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만을 풀지 않도록 하여 자주적 여학생회의 사상이 여성자주화 사상이라는 것을 새내기뿐만 아니라 학생회까지도 합의하도록 하는 장이어야겠다.
5. 4·9를 지난 뒤의 시기이지만, 전단위의 결합력을 높여 복현 전체가 집중하여 어울림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 목표

1. 여학간부들을 4·9제까지의 투쟁을 거치며 활동가로, 대중간부로 굳건히 세워내자.
2. 여성자주화사상이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자주적 여학생회에 대한 상을 합의한다.
3.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여성문제를 깊게 고민하게 하여 대동학교 이후에 단위에서 여연, 탁아 후원회, 정신대 후원회 등을 건설하고, 기존의 여연, 탁아소모임을 안착화 시켜낸다.
4. 우리 대오내에서 여학생회와 여학생운동을 합의한다. (교사교양에서 학생회간부들까지 참가하도록 하여)
5. 중앙과 단위, 과가 같은 감으로 사업을 가져가 체계를 확립시킨다.

농대에서의 대동학교, 위상과 의의 목표 고민.

17.15.18

여학생회의 낮은 인식수준을 높여내자.

여연 탁아의 ~~모임~~.

↳ 소모임 ↳ 알려내가고, 안착화시켜나간다.

여학일꾼을 책임지는 중앙운위가 3,4월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백만청년아 !

피어린 항쟁의 나날,

조국통일의 혈로에서 청춘도 생명도 불살랐던 언대 항쟁의 정신으로

김영삼 정권을 다도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한길에 청춘을 걸자 !

조국통일 월성화.

반미자주의 가치 높이들고 김영삼 다도 전선으로 총집결하여

전민항쟁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

시대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전민항쟁의 주역으로
만족북천 8000 여학우는
북천의 주인됨에서
여성자주화의 실천으로
대중학교의 물결을 전민항쟁의 물결로 만들자 !

각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직선간부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이야말로 우리 운동을 살리는 초석이며 몰아치는 전민항쟁의 청년학생이 주역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새역사를 창조하고자 할 것입니다.

<1> 3,4월 학우의식화, 조직화를 위한 대중과의 사업에서 활동력을 비상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여학생 운동의 승패를 좌우한다. 핵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각인하자.
- ② 대중적 기반을 넓히고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회장님의 헌신적이며 모범적인 활동은 전간부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며 간부들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동하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방도이며 간부혁신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 ④ 자기 사업, 활동의 정형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만듭시다.
- ⑤ 여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몸으로서 체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학우에 대한 애정과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결의가 더욱 드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2> 중앙운위 여러분 활동의 내용

- ① 자기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하루 하루의 활동을 매우 내실있게 총화하여 짧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자.
-매일 만날 사람, 방문할 곳(예를 들면 총회나, 신입생환영회등), 하루일정, 연설문 등의 준비를 철저한 계획속에서 진행한다.

-하루하루 활동에 대한 치밀한 총화를 하자. (학우만나는 데서 내용의 평가, 이미지 관리 선전선동, 하루일정에서의 문제점 등등)

② 내용적 준비를 잘 하자.

- 만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가, 주된 고민은 무엇인가를 사전에 알아서 만난다.
- 당면 정세와 사업, 투쟁을 나름대로 잘 요약하고 해석해내자

③ 집회와 선전선동 주요한 학우 의식화 공간에서 주인이 되자

- (우리 여학일꾼들은 직선 간부이자 대중조직의 지도자이나 결합률도 떨어지고 대열의 지도자 로써 올바르게 보위 보좌되기보다는 대열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
- 연설문, 선전선동문은 자신의 논리로 풀어써서 여러번 되풀이 해서 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요구가 있을 시 즉흥적으로도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는 여학대표자가 되자.

④ 학우 만나기를 쉽없이, 발바닥이 닳도록 하자.

- ㉠ 학우만나는 데서 이러한 자기원칙을 세워 보자.
 - 몇명의 학우를 만날 것인가 목표를 세우자.
 - 만나서 이야기 나눈 학우의 과와 이름, 연락처, 이야기 내용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 학우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찾아가자.
 - 학우들을 만날 때는 적극적으로 만난다.
 - 자신의 활동을 최대한 부각시켜 내자.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으로 만난다.

㉡ 학우 만나기 방법

- 강의실 선전아지, 인사
- 기숙사 방문
- 인근 자취방 방문
- 주변 술집, 식당
- 학교 식당
- 복문앞

⑤ 자기 관리-외모 가꾸기

- 차림새 단정
- 걸음걸이
- 사람을 대하는 자세
- 얼굴 표정
- 인사성

<3> 활동 수칙을 세워 활동함시다.

- 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다니자.
- ② 외모 단정히 하자.
- ③ 만나는 사람은 한사람도 빼뜨리지 말고 인사하기
- ④ 학우들이 조금이라도 모여있는 곳은 지나치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연설을 하자.
- ⑤ 이야기할 때는 또박또박하게 하고 되도록 크고 야무지게 하자.
- ⑥ 만나는 대상의 처지와 특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4> 활동 흐름과 하루 일정을 세세하게 세워 활동하자.